

80年代 國立公園運動의 指向—



지난 2年間の 在任期間中 이렇다 할 実績을 쌓지 못한 無爲를 自省하여 今年 總會를 契機로 물러날 뜻을 表明했으나 다시 重責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加一層 献身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여 고마움과 責任의 무거움을 痛感합니다.

우리가 맡은 바 國立公園運動은 10여年の 歷史를 기록하면서 國際的連繫도 未洽하고 財政도 組織도 未熟한 與件속에서나마 國家經濟의 成長과 國民生活의 情緒涵養을 뒷받침 할 기틀을 이룩해가고 있다고 自負합니다.

좁은 國土空間에 밀어닥친 工業化, 都市化의 물결이 물고 온 심각한 環境汚染과 自然資源의 파괴가 끼친 生活空間의 非生態化를 克服하려는 政府의 強한 政策意志와 國民的 熱望은 自然公園運動이 15個 國立公園, 23個 道立公園을 포용하는 量的 팽창을 기록하는 가운데 內實있는 質의 成長도 착실하게 進行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래의 進運에 瞬時的 멈춤이나 게으름이 허락되지 않듯이 國立公園運動에 있어서도 全혀 放心과 나태가 허용되지 않을 뿐더러 더욱 끈질기고 熱氣찬 精進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現實입니다.

天惠의 秀麗한 自然을 가꾸고 다듬어서 자랑스레 後孫에게 물려 주어야 하는 世代的 使命과 先進의 문턱을 넘어서야 하는 時代的 召命, 더구나 눈 앞에 닥친 아시안 게임·올림픽開催 등 國際化時代의 開化期에 발맞추어야 하는 國立公園運動의 課題는 어느 때보다도 더욱 加重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어느 社會學者는 우리의 60年代를 絶對貧困으로부터의 解放時代로 区分하고 70年代를 汗昏이라도 더 벌어들이고자 民族의 生存魂으로 밀어붙인 成就의 時代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近代化의 기치아래 五千年의 貧窮을 몰아내고자 하루에 수십 수백 마일씩 異國 땅의 정글과 사막을 누비는 苦行을 마다 하지 않았던 執念이 더욱 불타고 産業社會에서 情報社會로 移轉하는 技術革新이 온 國民的 合意로 追求 成就될 때에 우리의 80年代는 지극히 밝은 軌跡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몇달간의 冬眠을 끝내고 生動하는 自然의 봄기운 속에서 지난번 13차 총회가 國立公園運動의 마스터플랜의 樹立을 決議하고 組織의 底邊擴大를 위한 支部網의 補充을 다짐했는가 하면 政界, 學界, 言論, 財界의 現役 重鎮人士들을 새로 任員陣에 迎入하는 등 年來의 懸案인 公園運動活性化에 進一步의 契機를 마련한 것은 奪發과 內實을 다지는 國家的指向 속에 80年代 國立公園運動에 새로운 前向的坐標를 設定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期約이 政府의 果敢한 政策支援과 뜻있는 國民들의 熱意있는 同參으로 눈부신 빛을 발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所望하면서 가일층의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1984년 3월 20일

韓國國立公園協會長

홍

호